1. 하늘 땅 사람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고
만물*이 있으니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걸려 있고
江(강)과 바다와 山(산)은
땅이 싣고 있다. (『계몽편』 「수편」)

*만물 : 동물과 식물을 비롯한 수많은 물건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본문 해설

밖에 나가 위로 올려다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하늘[天]이 보이지요? 하늘[天]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비록 눈이 부시겠지만 해[日]가 보일 거예요. 낮인데도 해[日]가 안 보인다면 구름이 보이겠네요. 만약 밤이라면 깜깜한 하늘과 별이 보일 거고요, 어쩌면 달[月]도 보이겠네요. 높은 건물이 많은 도시라면 아마도 높은 건물에 막혀서 하늘[天]이 잘 안보일 수도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다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시멘트 바닥만 보인다구요? 도시에 산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도시가 아니라면 흙과 흙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식물이 보일 거예요. 그 흙으로 이루어진 것을 땅[地]이라 부르지요.

그럼 이번에는 하늘[天]과 땅[地] 사이에 보이는 것을 말해 봐요. 나무·곡식·건물·사람·동물·자동차 등 온갖 것이 보이지요? 이 온갖 것을 통틀어 만물이라고 불러요. 옛사람들은 만물을 대표하는 것을 인간[人]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하늘[天]과 땅[地]과 인간[人]이 세상을 이루는 중요한 세 가지로 보았어요.

그런데 해[日]와 달[月]과 별은 하늘[天]에 걸려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것은 먼 옛날부터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우주에 대한 모습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 우주의 중심에는 움직이지 않는 네모난 땅[地]을 하늘[天]이 덮고 있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땅[地]은 山(산)이나 江(강)이나 들판 같은 만물을 싣고 있고, 해와 달은 하늘에 걸려 있다고 여겼지요.

지금 보면 틀린 것이지만 아무튼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처음 배우는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계몽편』이나 『천자문』에 우주에 관한 내용이 맨 처음 나오지요. 하늘인 天(천)과 땅인 地(지)가 그것이에요.

생각해 볼 문제

1. 앞의 본문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네 가지로 나누어 볼 때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했나요? (　　) 속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세요.

하늘　　땅　　만물　　(　　)

2. 다음 〈보기〉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골라 적어 보세요.

〈보기〉 강, 해, 바다, 달, 산, 별

가. 하늘에 있는 것 (　　)

나. 땅에 있는 것 (　　)

3. 왜 옛날 사람들은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려있고, 바다와 강과 산은 땅이 싣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각자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4.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 가운데 무엇이 가장 귀한지 자기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가. 귀한 것 :

나. 그 이유 :

5. 이 글에서 말하는 것 외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각각 5가지씩 생각나는 대로 더 적어 보시오.

가. 하늘에 있는 것 :

나. 땅에 있는 것 :

한자 익히기

1. 앞에서 등장한 낱말에 해당하는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하늘	땅	사람	해	달	강	산
한자	天	地	人	日	月	江	山
음	천	지	인	일	월	강	산

2. 위에 나오는 한자를 합쳐 낱말을 만들었어요. 서로 관계되는 것끼리 줄로 이어 보세요.

(1) 하늘과 땅 ●　　● 日月(일월)

(2) 강과 산 ●　　● 天地(천지)

(3) 해와 달 ●　　● 江山(강산)

3. 다음 설명에 맞는 한자를 □속에 써 보시오.

가. 매일 매일 기록하는 글 : □記(일기)

나. 사람의 힘 : □力(인력)

4. 앞의 『계몽편』의 내용을 다시 써 보았어요. (　)속에 알맞은 한자의 뜻을 써 넣어 보세요.

위에는 天(　　)이 있고

아래에는 地(　　)이 있다.

天(　　)과 地(　　) 사이에

人(　　)이 있고

만물이 있으니

日(　　)와 月(　　)과 별은

天(　　)에 걸려 있고

江(　　)과 바다와 山(　　)은

地(　　)이 싣고 있다.

관련된 이야기

하늘 천 따 지

옛날 어떤 소년이 서당 훈장님께 공부를 배우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날부터 하늘 天자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도 소년은 아무 불평 없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 가지를 깨우치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공부한 내용은 天에 해당하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10년 동안 공부를 했건만 훈장님은 그 소년을 놓아주지 않고 서당에 붙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소년 스스로도 하늘 天에 관계된 내용만 알아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서당에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훈장님이 땅 地에 관계된 내용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10년이 지나자 소년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과거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과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비록 天과 地에 관계된 내용만 공부했지만, 사실 세상의 일이란 다 따지고 보면 天地와 관계된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는 것도 알고 보면 이렇게 관련시켜서 아는 일이지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렇게 다른 사물과 관계 짓는 습관을 갖는다면 훨씬 공부가 재미있을 것이라 믿어요.

관련 인성 가치	책임